KIA 이의리 “부상 없이 승리 이끄는 선수 될 것”

22일 함평-기아챌린저스필드서 첫 실전 소화
2이닝 2피안타 4탈삼진 비자책…“기본기 집중”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수술 없이 잘 던져서 팀 승리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KIA타이거즈 투수 이의리가 팔꿈치 수술 후 첫 실전을 마친 뒤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의리는 22일 함평-기아챌린저스필드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 선발투수로 나섰다. 지난해 6월 왼쪽 팔꿈치 내측측부인대 재건술 및 뼛조각 제거술을 받은 이후 1년여만의 첫 실전이다.

이날 39개의 공을 던진 이의리는 2이닝 2피안타 1사사구 4탈삼진 1실점(비자책)으로 호투했다. 그는 직구 21개, 커브 3개, 슬라이더 7개, 체인지업 8개 등을 던지며 다양한 구종을 점검했다. 최고 구속은 151㎞였다.

1회 상대 선두타자 이한별에게 볼넷을 내준 이의리는 전다민과 박계범, 김대한을 모두 삼진으로 잡아냈다.

또 2회에는 류현준과 장규빈에게 연달아 안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2루수 송구 실책이 나왔고, 류현준이 홈플레이트를 밟으면서 1점을 내줬다. 이후 천현재를 뜬공, 신민철 삼진, 이선우를 뜬공으로 처리하면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이의리는 경기 후 “전체적으로 괜찮다. 몸 상태가 좋다”며 “전력피칭을 하고 나서도 피로감이 따로 없어서 좋은 느낌이다”고 자평했다.

그는 당초 복귀 시점을 6월로 잡고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팔꿈치에 염증이 발견되면서 등판이 밀렸다. 결국 지난 14일로 예정했던 퓨처스리그 등판 계획을 취소하고 15일 라이브 피칭을 소화했다. 피칭 후에는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21일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거센 비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22일 복귀전을 치르게 됐다.

이의리는 “복귀가 밀려서 답답한 점은 없었다. 아팠을 때는 통증이 심하긴 했는데, 주변에서 확실하게 돌아오는 게 좋다고 해서 기다렸다”고 전했다.

이어 “1군에 있는 선배들과 감독·코치님이 ‘급하게 오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에 안정감을 느끼고 준비를 잘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펜피칭에서 구속이 146㎞ 정도 나왔던 그다. 그러나 첫 실전에서는 151㎞의 공을 뿌렸다.

이에 이의리는 “오늘은 실전이라 긴장해서 구속이 더 나온 것 같다. 구속 자체는 마음에 든다”며 “구속을 신경 쓰고 던지지는 않았다. 포수 보고 전력피칭하자고만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그가 이날 다양한 구종을 점검했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는 80~90구 이상 던질 수 있는 정도까지 몸을 회복한 뒤 1군에 오를 예정이다.

진갑용 KIA 퓨처스 감독은 “수술 이후 첫 실전 경기였는데, 마운드에 오른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보다는 선수 본인이 던지고 나서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는 아직 100%는 아니지만, 다음 등판에서는 더 좋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다”면서 “오늘 직구와 변화구 모두 나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지난 2021년 1차 지명으로 KIA에 입단해 그해 신인왕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활약을 해왔던 이의리다. 프로데뷔 후 첫 수술을 했던 그는 이번 경험으로 느낀 점이 많다.

이의리는 “기본기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필요성을 느껴 이번 기간에는 기본기에 많이 집중하려고 했다”면서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 꾸준히 보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의리는 “그동안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건강하게 은퇴할 때까지 수술 안 하고 잘 던져서 팀의 승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서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 열전

2년만 재개…24~29일 고등부 등 600여명 참가
광주여대·광주시청·광주은행팀 등 금메달 조준

2025 세계 양궁선수권대회 테스트 이벤트인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여 양궁대회’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된다.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양궁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남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 60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대회는 1440 라운드 및 올림픽라운드 방식으로 리커브와 컴파운드로 나눠 시·도 대항, 개인전, 단체전, 거리별 승자를 가린다.

2017년부터 ‘양궁 메카’ 광주에서 7년 연속 개최됐던 대통령기 양궁대회는 지난해 광주국제양궁장 확장공사로 잠시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광주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특히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직전 테스트 이벤트 경기로 치러져 전 세계 양궁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예선전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29일 전 종별 결승전은 5·18민주광장 특설 무대에서 진행된다.

이날 결승전은 생중계 방송으로도 일부 진행되며, 다음날인 30일은 2025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이번 대회 우승팀 간의 특별 단체전 이벤트 경기도 함께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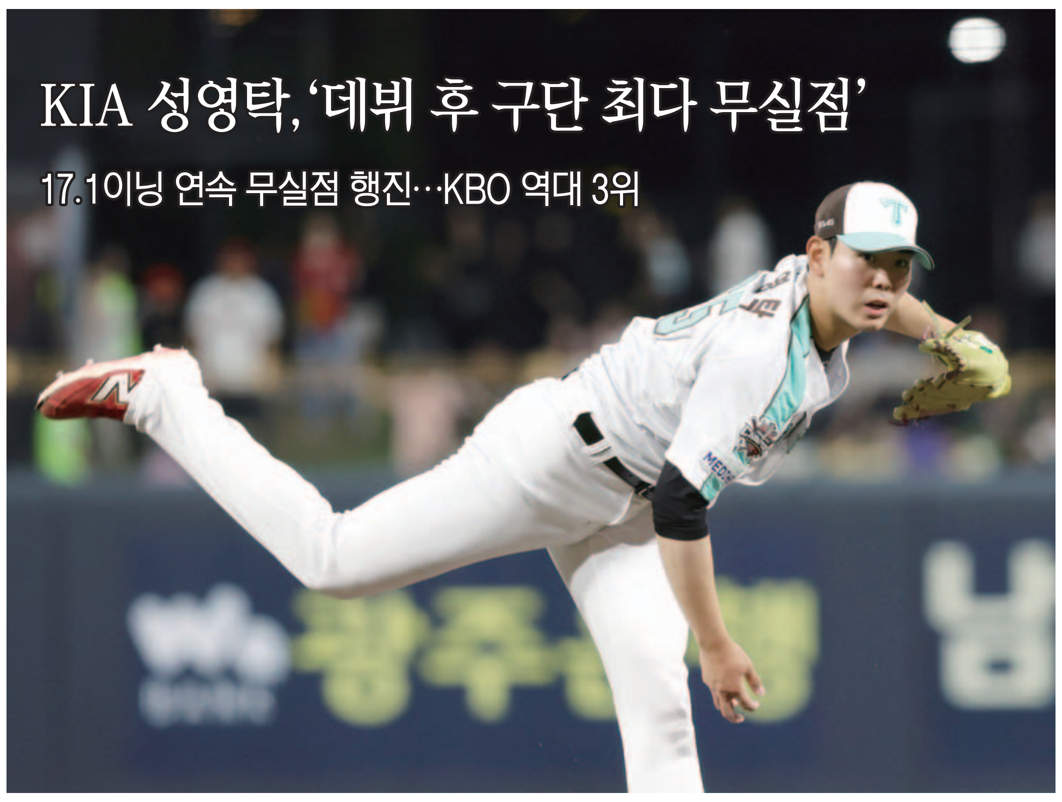
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선수단은 국가대표 이승윤이 포진한 광주 남구청(남자부), 국가대표 김수린이 속한 광주시청(여자부), 국가대표 안산·전 국가대표 최미선이 창단멤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광주은행 ‘텐텐 양궁단’(여자부)이 일반부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대학부에서는 광주여대(여자부)와 조선대(남자부)가, 고등부에서는 광주체고(남·여부)가 각각 출전해 금빛 시위를 당긴다.

한편 22~23일에는 전국 양궁 꿈나무들이 참가하는 ‘제36회 전국 남녀초등학교 양궁대회’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이번 초등부 대회에서는 컴파운드 부문이 신설되며, 양궁 저변 확대와 미래 인재 발굴에도 힘을 쏟는다.

이번 대회에 광주는 유촌초(남·여), 성전초(남), 염주초(남·여), 두암초(여), 문산초(남·여), 삼정초(남) 등에서 남자 5개팀·여자 4개팀이 출전한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성영탁,‘데뷔 후 구단 최다 무실점’

17.1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KBO 역대 3위

KIA타이거즈 신예 투수 성영탁이 데뷔 후 17.1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으로 구단 최다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성영탁은 지난 21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SSG랜더스와의 경기에서 9회말 1사 1·2루 상황 등판했다. 그는 상대 정준재를 범타로 처리한 뒤 박성한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최원준의 호수비로 에레디아를 홈에서 잡아내면서 무실점에 성공했다. 이어 10회말에는 삼진 1개와 범타 2개로 삼자범퇴이닝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앞서 지난 19일 kt전에서 데뷔 후 14.2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며 구단 최다 기록을 경신했던 성영탁은 이로써 17.1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을 달렸다. 이는 KBO리그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2024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0라운드 96순위로 KIA에 입단한 성영탁은 지난 5월 20일 수원 kt전에서 1군에 처음 등록돼 당일 데뷔 무대를 치렀다. 2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데뷔전을 화려하게 장식한 성영탁은 21일 SSG전까지 13경기에 구원 등판해 17.1이닝 무실점을 이어갔다. 종전 구단 최다 기록인 1989년 조계현의 13.2이닝을 훨씬 뛰어넘은 대기록이다.

이제 성영탁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2위 기록을 가진 조용준이다. 당시 현대 소속이었던 조용준은 2002년 4월 5일 수원 SK전부터 4월 21일 수원 한화전까지 데뷔 후 18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성영탁이 아웃카운트 2개를 무실점으로 잡아낸다면 이를 뛰어넘는다.

역대 1위 기록은 김인범(키움)으로 2021년 8월 29일 잠실 LG전부터 2024년 4월 26일 고척 삼성전까지 19.2이닝 무실점을 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한국 핸드볼, 한일전 승리로 아시아 정상 복귀 시동

202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2028년 LA 올림픽 본선 진출 목표

한국 남녀 핸드볼 대표팀이 일본과 정기전을 나란히 승리로 장식하며 아시아 정상 복귀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나라 남녀 핸드볼 대표팀은 21일 충북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5 한일 핸드볼 국가대표 슈퍼매치에서 남자부 27-25, 여자부 29-25 승리를 거뒀다.

최근 남녀 성인 대표팀 모두 일본을 상대로 백중열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으나 한국은 모처럼 두 경기 모두 승리를 따냈다. 한국 남녀 핸드볼은 최근 약 3년간 외국인 감독 체제로 운영됐다.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남자 대표팀은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여자 대표팀도 8강에 머물면서 2022년 남녀 모두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다.

남자는 홀란두 프레이타스(포르투갈)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고, 여자 대표팀 사령탑에는 킴 라스무센(덴마크) 감독이 선임됐다. 이후 라스무센 감독이 불과 반년 만에 사실상 경질되면서 2023년 초 헨리크 시그넬(스웨덴) 감독이 부임했다.

하지만 남자 대표팀은 2024년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연달아 5위에 머물렀다.

여자 대표팀 역시 파리 올림픽 본선에는 나갔으나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으며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지난해 아시아선수권에서 모두 우승을 일본에 내줬다. 결국 대한핸드볼협회는 외국인 감독 체제를 사실상 거둬들이고 남자 조영신(상무), 여자 이계청(삼척시청) 감독에게 한국 핸드볼 재건의 임무를 맡겼다.

4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조영신 감독은 21일 일본전 승리 후 “내년 1월 아시아선수권 결승에서 일본과 다시 붙어보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좋은 성적에 이어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본선에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국 남자 핸드볼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것은 2010년 광저우 대회가 마지막이고, 올림픽 본선 진출 역시 2012년 런던 이후 소식이 없다.

이계청 감독은 지난해 11월 선임돼 12월 아시아선수권 결승에서 일본에 졌으나 이번 정기전에서 설욕했다.

우선 국내 감독들이 대표팀을 지휘하면서 대표팀 소집 기간이 길어져 한국 핸드볼의 강점인 조직력을 다질 기회가 늘었다.

남자가 9월까지 계속 대표팀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고, 여자도 8월 촌외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5월 소집 후 유럽 전지훈련을 다녀온 여자 대표팀은 21일 일본 전에서 여러 차례 약속된 플레이로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며 탄탄해진 조직력도 발휘했다.

이계청 감독은 “선수들에게 국가대표로서 하나된 팀을 만드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아시아 정상 복귀를 향한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국제스포츠교류 국비 공모 선정

축구 종목 2000만원 확보…내달 중 대회 개최

광주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국제 유소년 스포츠교류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

22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접수한 ‘2025년 한일 지역·종목 간 청소년스포츠교류 공모’에 광주시축구협회가 선정돼 국비 2000만원을 확보, 7월 중 보라매축구공원 등 광주 일원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가 협약된 종목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다. 지난해 광주시축구협회가 선정돼 초등학교 선수단이 일본 센다이로 파견 교류를 다녀온 바 있다.

광주시축구협회는 광주시와 센다이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양 도시를 오가며 활발히 교류를 진행해 왔다. 시체육회는 이 사업으로 광주 지역 유소년 선수들의 국제스포츠 경험 축적과 함께 경기력 향상을 통한 체육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갑수 광주체육회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해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축구 유소년들에게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며 “양 도시의 축구 경기력 향상은 물론 문화 및 정서상의 교류를 통해 성장하는 선수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